



LOVE LETTER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잘못 들어선 길은 없습니다”

2주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커피프레이크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한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일이 있어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저와 교제하기 위해 조금 일찍 오헤어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한지 1년 6개월 정도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단의 support를 받고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조금 더 늦기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모든 편안함과 편리함을 뒤로한 채 구지 남들이 가려 하지 않는 개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시카고에는 두 번째 방문이신데 이전 방문때는 시간이 그리 많이 않아 구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길래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다운타운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도 시카고에 살지만 다운타운을 많이 다니지 못해서 왠지 다운타운 입성은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나나 다름까 빌딩 숲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전화기 지도 앱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위치를 설정하는 그 자체가 제게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운타운에 왔던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나름대로 마치 길 잃지 않은 듯이 태연하게 운전을 하며 여기저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혀 발견하지 못한 곳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다운타운을 찍고 왔는데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속속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곳들을 잠시라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곳도 있구나” 아마 저와 함께한 목사님은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계획대로, 의도된 대로 제가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하셨을 정도로 태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보니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발견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내는 황재를 누렸습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박노해 시인이 쓴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를 만났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차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길을 잃어, 우연히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는 개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 속에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나로 하여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볼 때 길을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지지 않기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물들이 오늘 내 삶의 현존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힘들어 하고 있을 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못 들어선 길은 없습니다. 설사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Mike Brick, Tara Der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Love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황은수 집사

헌금찬송.....다같이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 장 / 통 350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마가복음10장 35-45절(신약, P.72)
(Mark 10:35-45)

설교.....임무영 목사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6>
“섬기면 행복합니다”

(Serving God and others makes me happy)

설교후 찬양.....다같이

“섬김”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친교(성도간 사랑의 식탁교제)재개:3-4월 친교는 사랑방별로 식사진행 (사랑방별 테이블 셋업)
 - b. 4월부터 예배시 마스크 착용은 Optional 로 진행합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 4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d. 4월달 생명의 삶 픽업 (문의: 전성민)
 - e.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성금모금: \$3,610.00 (현금: \$2,610, 교회재정: \$1,000)
 - f. 다음주일은 2022년도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봉투 사용)
 - g.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urch.org
 - h.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이번 주 토요일예배는 성금요일 예배로 인해 한 주 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10:30am / 소예배실
4. 2022년도 성금요일 예배 및 부활절 예배
 - a. 성 금요일(Good Friday)예배: 4/15(금) 8pm / 본당
 - b. 부활절 온세대 연합예배(Easter Sunday): 4/17(주일) 12pm
 - c. 내용: 부활절 칸타타, 성인/유아세례, Confirmation 및 스킷(Youth), 부활절 만찬
*차세대 및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5. 모임 및 모집
 - a. 1부 반주자로 섬길분을 모십니다.
 - b. 확대운영회의 및 기도회
-일시: 4/11(월) 8pm / 운영위원 및 팀장 / ZOOM
 - c. 부활절 칸타타 마지막 연습모임: 4/13(수) 7:30pm
 - d. 5월 운영위원회 모임: 4/26(화) 6:30pm / 박지웅 집사 가정
 - e. 한마을 주최(사랑방 4)봄맞이 홀랜드 튜링여행 안내
-일시: 5/10(화) 8am / 회비: \$60(입장료,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문의: 김현영 백송학
6.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송재우, 이희철 / 다음주: 허은혜, 신성호
 - b. 다음 주기도: 김성호
 - c. 4월 안내및 헌금위원: 김정미, 박선옥 (안내) / 김효정, 안성민 (헌금)
7. 기도제목
 - a.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사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8. 지난 주 출석: 어른(90), 다음세대(22)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동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